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민가협 20년,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조 순 덕
(회원, 민가협 상임의장)

여의도에서 보낸 2004년 12월

2004년, 참으로 힘든 한해였고 바쁜 한해였다.

“이번에는 끝장내야지”,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국가보안법이 ‘완전 철폐’되리라 굳게 믿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뛰어다녔다. 모두들 그랬다. 하지만 2004년을 보내며 우리에게 돌아온 건 ‘실망’과 ‘절망’이었다. 여의도 칼바람 속에서 목숨을 내건 단식을 했던 1,300여 명의 국민농성단을 절망케 했다.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외치며 길게는 5~60일에서 짧게는 10여 일의 단식을 해오면서 죽을 힘을 다해 투쟁해 왔다. 급기야 4자회담 진행의 답답함을 보다 못해 단식 농성자들은 물마저, 소금마저 끊고 처절하고 극한투쟁까지 전개했다. 국회는 국민단식농성단의 처절한 외침마저 외면해 버렸던 것이다.

그들은 웃을 기운도, 울 기운도, 말할 기운도 없는 몸으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며 ‘국가보안법 연내폐지’의 신념을 국회,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전주 김원기 의장 지역구, 한남동 의장 공관, 저 멀리 제주도 등 전국으로 알려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했다. 거기에 열린우리당이 함께 해버린 것이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했던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철통 같고 높은 벽을 뚫을 수도, 넘을 수도 없었다.

전국에서 함께 한 청년·학생, 7,80세 이상 고령의 재야 선생님들, 결혼 5일된 신혼부부, 출산 직후 참석해 통통 부은 젖을 짜내며 우는 산모, 두세 살 된 자식들을 친정에, 시집에 또는 친구 집에 맡기고 참석한 젊은 부부, 신부님, 목사님, 교수, 변호사 등 국민단식농성단 개개인의 사연을 어찌 다 쓸 수 있을까. 국회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무시해 버렸다.

그런 와중에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은 살림도 접어두고 11월, 12월을 국회와 여의도 농성장에서 보냈다. 각 의원실마다 방문해 “왜 폐지에 서명하지 않느냐?”, “왜 존치냐?”, “왜 개정이냐?”,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에게는 격려를, 존치나 개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에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힘써줄 것을 호소하거나 설득을 하면서 우리의 뜻을 전하였다. 어느 국회의원은 ‘다른 것은 무서운 게 없는데 민가협 어머니들만 보면 무섭다’라고 말한다. 나라를,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왜 민가협 어머니들만 무서워하는가. 국민들을 모두 무서워해야지.

2004년의 두 달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일하였지만 그 결과 폐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과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내야 한다. 2월 임시국회 때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되리라 믿는다.

어느 친구는 말한다. “분단된 남북에서 국가보안법이 그리 쉽게 폐지되겠냐?” 한다. “역사가 바뀌고 통일이 되고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 이 조순덕이도 약간 한 몫했다고 생각해 주라”라고 대답하면 “알았다 알았다”라고 한다. 이런 대화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조금은 더 성숙해서일 것이다. 그렇게 2004년 마지막 12월을 보냈다.

인권이 침해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올해로 우리 민가협 20주년이 된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그 말대로라면 강산은 두 번이나 변했을 시간을 보낸 것이다. 다만 ‘어린 나무’가 ‘고목’으로 변했을 뿐 강산은 그대로다. 20년을 맞이하는 ‘민가협’도 변한 것이 없다. 1985년 암울했던 군사독재정권 시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출발하였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여서 혹독한 고문으로 고통 받고 감옥으로 간 남편, 자식들 또는 수배 생활로 고통 받은 남편, 자식들을 구하고자 경찰에게 곤봉으로 맞고 방패로 찍히면서 최루탄 속을 헤집고 다니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그런 투쟁으로 인하여 군사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로까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다.

선배 어머니들의 지난날의 민가협 활동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고생하셨을

까?’ 생각한다. 그런 선배 어머니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 젊은 민가협 회원들의 활동은 좀 편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선배 어머니들을 비롯한 민가협 회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석방’을 외치며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며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등 누구든 연행되거나 구속되면 빠른 걸음을 재촉하여 인권이 침해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간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또한 젊은 우리 회원(한총련 어머니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고 있다. 항상 부족함이 많은 나는 선배 어머니들 따라 ‘노력해야지’ 하면서 활동하지만 생각만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많았다. 항상 ‘~ 노력해야지’를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아 본다.

2005년에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고 통일원년으로 고향과 혈육의 정을 그리워하는 장기수 선생님들의 고향 가시는 꿈과 희망도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의 건강도 지켜주셨음 하는 바람도 간절하다. “모두 ♡ 합니다.”
2005년 힘차게 투쟁!!!

민주가족 61호(2005.1)